

민주 “지역구-비례 몰빵론” 조국혁신당 “이젠 비조지민”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에 민주당도 경계 이재명 “민주당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협력에서 경쟁으로... ‘명예당원’ 박지원에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상승세에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비례)를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 모두 투표해달라는 ‘몰빵론’으로 전환했다. 자칫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교차투표로 더불어민주당 득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비조지민’을 주장하고 있다. 투표장에 나가는 조국혁신당 지지자가 반대로 민주당 투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전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묻은 결과 조국혁신당은 26.8%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0%대를 돌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

(18.0%)를 넘어섰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31.1%)를 바짝 추격 중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정권종식론을 앞세워 범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정권심판론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관권선거 의혹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하는 등 대어 투쟁 기조를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들을 살펴보면 조국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검사, 황운하 의원 등 이른바 반검찰·반윤석열 성향의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 점도 야권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목표 의석수로 10석을 제시했다.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최대 15석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5% 득표를 한다면 12~13석 정도, 30% 득표한다면 14~15석 정도가 조국혁신당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폭발적인 여론의 반응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이제 ‘지민비조’가 아닌 ‘비조지민’을 외치고 있다.

‘지민비조’가 민주당 쪽으로 갔다가 조국혁신당을 찍는 수동적 의미라면, 비조지민은 그 반대다. 조국혁신당이 전체 야권 파이를 키웠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덕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방문한 대구에서의 일화를 언급하며 “제가 놀랐던 게 (대구 시민들이)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이번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고 물어보니 TK(대구·경북)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이 싫는데 민주당으로 안 가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으로 오시는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군이라고 여겼던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이어지자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조 대표와 만나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한 바 있는데 2주 만에 경쟁 구도로 전환됐다.

이 대표는 전남 강원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몰빵론’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요즘 우리가 잠시 헛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연합”이라고 말했다.

유세에 함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쌍둥이다. 전 아군이요”라고 강조했다. 백 공동대표는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아군이 든든하나, 우군이 든든하나”며 “아무리 도와주는 친구라도 아군보다 못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1당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 집권당의 횡포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을 계기로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 심야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박 전 원장의 발언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남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연합인데 (박 후보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냐”며 “거기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속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출연한 ‘시사인’ 유튜브 방송에서 “저희랑 정세 인식이 똑같아서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조 대표의 발언에 웃으며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은 좋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 후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명예당원을 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심각한 사안으로 최고위원회의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논란에 중심에 섰던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박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은 덕담 차원에서 했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며 “저는 뱀속까지 민주당원이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윤석열·김건희 검찰정권을 심판하는데 지난 2년간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이개호 후보, 전국양과생산자협회 합평군지회와 정책협약식



이개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의장)가 20일 (사)전국양과생산자협회 합평군지회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기후위기 속에서 양과, 마늘 등 국산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가격보장 및 생산비 절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 후보와 (사)전국양과생산자협회 합평군지회(지회장 정찬행)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우리 농정의 가치

민주당 정책위의장 다운 잇따른 정책 선거 행보로 눈길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데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국산 마늘과 양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채소류 수급 안정적분배도와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및 농업농촌 인력지원 제도 개편 △기후 위기 시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작물 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등의 사항을 협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우리 농업과 농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양과, 마늘 등 우리 채소농가는 급격한 가격변동과 생산비 급등으로 노력한 만큼의 댓가는 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협약내용이 농업의 공익성 강화와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향후 관련 법안통과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개호 후보는 매일 지역 아침 출근인사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행사 참석 및 상가 방문을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의장답게 잇따른 정책협약식을 통해 정책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담양, 함평군을 비롯한 농어촌기본소득 전국 및 전남 연합 관계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관련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또한 강연의지를 갖고 있는 정책으로 총선 공약에 포함함은 물론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의’ 수용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자진사퇴했다. 일부 언론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발언해 논란이 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6시49분께 언론인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알렸다.

다만 황 수석이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시점,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MBC는 지난 14일 황 수석이 자사를 비롯한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오찬 중에 “MBC

는 잘 들어”라고 말하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수석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당시 (언론인)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황 수석은 지난 16일 본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정계에서는 황 수석 해법과 이종섭 호주대사에 더해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놓고 ‘윤-한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확산일로던 전선은 황 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